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 매진

이환주 시장, 문화재청장 등 방문 문화융성 관광 사업 당위성 적극 피력

남원시가 역사·문화로 융성하는 남원관광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23일 김종진 문화재청장과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역사·문화로 융성하는 남원관광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이번 방문은 부처에서 긍정 검토된 사업예산을 지키고 부진한 사업예산을 증액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2019년 추진되는 합과우 지구 22억 사업예산과 광한투원 전통가 사업 국비 29억원, 남원읍성 복원사업 국비 12.6억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비 28억원 등이 주요 골자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는 국가기관으로 승격된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사업 예산 9.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인의총 관계자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광한투원과 합과우로 이환화된 관광지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등 관광객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23일 김종진 문화재청장과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역사·문화로 융성하는 남원관광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남원 관광발전을 실행해 간다는 계획이라 국가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춘향테마파크를 리모델링하고 그 남쪽에 옛다솜 이야기길을 조성해 시립 김병중 미술관과, 천문대, 춘향테마파크 등을 벨트화 하는 관광단지 에 모노레일을 설치해 남원의 전통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한투원 주변 전통가와 남원읍성 복원사업 등을 통해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한층 끌어올려 문화융성 시대를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의 주시하며 2019년 국가예산 확보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봉황인재학당, 날씨만큼 뜨거운 인기

수강생 150명 최종 선발... 학부모·학생 만족도 높아

임실군의 미래인재교육의 산실인 봉황인재학당이 지역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두 번째 수강생을 맞이한다.

봉황인재학당은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올해 1월 개원한 뒤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는 지난 14일 선 받고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수강생을 24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40 등록절차 등을 개별 안내 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수강생들은 이날부터 26일까지 3일간 봉황인재학당 1층 행정실에서 등록접수를 받는다.

등록대상은 최종 선발된 150명이며, 중학생 1학년 53명, 2학년 53명, 3학년 44명이다. 이들 학생들은 입학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8월 6일부터 봉황인재학당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봉황인재학당은 임실읍 봉황로 301번지(구 농업기술센터) 일원에 위치

하여, 올해 1월 개원한 공립교육원으로 지역 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임실을 기치로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건립된 수준 높은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농촌지역 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의 인재를 중학생 단계부터 적극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개원 이후 5월 치러진 각 중학교 중간고사에서는 주요 과목인 국·영·수에서 지난해 기말고사와 비교해 재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졌다.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보충학습을 받고 후 수업을 통해 진행되고 일 반교과 수업을 비롯해 인성 및 동기 부여 프로그램까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봉황인재학당 최종 수강생들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택시와 미니버



스를 이용, 안전한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다. 저녁 급식도 제공하며 최상의 학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민선 7기에도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며 임실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김인숙 행정지원과장은 “봉황인재학당은 대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농촌지역 학생들을 우수인재로 양성하는 든든한 스승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산 사교육 못지않은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지역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열세번째 장류축제의 대변신

순창, 먹거리 강화·체험중심 축제로 개편

제13회 순창장류축제가 관광객들과 더 가깝게 호흡하는 체험중심 축제로 개편된다.

군은 지난 23일 2018년 제2차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 축제의 성공적 준비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눈에 띄는 사항은 장류 소재를 활용한 체험마당의 확대 운영이다. 이날 축제추진위원회들은 장류축제라는 축제의 정체성에 걸맞게 어린이들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을 기존 체험프로그램과 별도 운영해 축제의 재미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체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 전통소스인 장류를 테마로 한 축제인 만큼 고추장소스솟발 구이존 등 순창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도 강화해 순창만의 특징이 묻어나는 축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존 축제장 주무대 및 부무대의 위치를 조정해 주무대와 소스박람회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 관광객들을 소스박람회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공간적 배치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 축제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올해 달라지는 축제의 주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세부실천 계획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남 위원장은 “지역민이 함께 한마당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하여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준비하자”며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변화와 참신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기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특히 가족 그리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축제를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홍래 부군수는 “순창하면 장류, 장류하면 순창이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장류라는 테마와 참신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더 색다른 장류축제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 가을엔 고추장 익어가’는 순창에서 만나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순창장류축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펼쳐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휴가철 공직기강 바로잡기

임실군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군은 내달 17일까지 하계 휴가철 집중 감찰기간으로 정하고,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선다.

또한 군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피서지 안전·편익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된 감찰대상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 전 공직자와 군 출연기관 근무자 등으로 직무와 직무, 피서지에 대한 노출과 양행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휴가철 공직감찰 기간 중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개인용무 이식 등 복무위반 행위, 휴가를 이유로 민원처리 지연 등 무사안일 행정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아울러 휴가철에 편승한 품목·항응선물 수수 등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내 공원 및 관광지 유원지 등의 공공위생시설에 대한 청결상태 등도 점검한다.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경보시설 등 재난관리 시스템 및 방재시설 점검, 각종 편익시설 등 피서지 안전 위해 행위와 군민불편 초래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진두 부군수는 “휴가철 공직감찰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방문한 피서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중요한 감찰활동이다”며 “휴가철 직무태만 등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생명사랑 분위기 조성 총력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예방을 위한 농약자살예방 캠페인을 24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농약사가 집중되어 있는 공설시장 등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70대 이상에서의 자살수단이 목매기보다 음독으로 인한 자살이 약 2.7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신건강 이동상담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생명사랑문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전파판이 부착된 생수과 물티슈를 배부하는 등 농약 음독자살예방 캠페인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우울증선별검사 및 생명사랑캠페인 양성,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예방인식 캠페인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명사랑·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심 속에서 즐기는 물놀이 이목집중

남원 물방개 워터파크 개장 일주일 만에 3000여명 이용

남원시가 지난 16일 남원시 도심동 시내권에 시설 개장한 ‘물방개 워터파크’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하나 되어 더위를 즐기는 명소로 자리 잡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인기를 반영하듯 물방개 워터파크는 오전 10시 30분 개장시간 이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그날그날 등이 설치된 가족 쉼터에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는 등 개장 일주일 만에 어린이와 부모 등 3,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전국 유명 물놀이 시설이 부럽지 않아요 워터파크가 집 가까이 있어 너무나 좋다”고 입을 모

았으며, 학부모와 시민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좋다”며 내년에 워터파크를 설치해 주었으면 했다.

워터파크는 9월 말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월요일과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무료로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기간 멀리 가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안전하고 청결하게 물방개 워터파크를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인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